

혁신도시 '토지보상' 지지부진

내달 8일 기공식 앞두고 현재 보상을 13.5% 그쳐 市 공무원 땅 주인 개별접촉 등 다각적 독려 나서

다음달 8일로 예정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차질없는 기공식을 위해 나주시가 전 공직자를 동원, 토지보상을 독려하는 등 보상체계에 돌입했다.
나주시가 토지보상 독려에 나선 것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혁신도시 토지보상율이 13.5%에 불과하기 때문

이다.
오는 26일 노무현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경남혁신도시 기공식의 경우 토지보상율이 30%로 저조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토지보상율을 최소 50%대로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예정지역인 금천면과 산포면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은 휴일인 지난 20·21일 이틀간 비상 근무에 나섰다.
이들 공무원들은 1인당 4명의 토지 소유주 명단을 확보, 개별 접촉을 통해 보상에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22일부터는 이같은 비상근무 체제를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토지보상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태구 혁신도시사업단장은 "현재 토지보상율이 저조하지만 주민대책위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기공식 전까지 50%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 김춘식 위원장도 "시행사와 협의를 맺었던 지장물 보상 문제가 지켜 지더라도 토지 보상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시행사들이 기공식 이전에 지장물 보상가격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中·日 후손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명량대첩제' 연다

26일부터 해남 우수영 일대서

해남 명량대첩제가 중국과 일본에서 건너 온 명량해전의 후손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진다.
오는 26일부터 3일간 해남 우수영 일대에서 열리는 제 410주년 기념 명량대첩제에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도와 활약했던 중

국 진린 장군의 후예들과 명량대첩에서 대패했던 왜장 구로시마 미치후사의 후손들이 참석한다.
진린 장군의 고향이자 해남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옹원 현에서는 이번 행사에 주의왕(朱余旺) 현장 등 8명이 방문, 진린 장군 추모관을 참배한다. 또 구로시마 장

군 현창보존회장이 일본 시코쿠 에히메 현 이마바라 시 후쿠모토 시의원 등 일본측 방문단 9명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구로시마 미치후사는 명량대첩 때 왜선을 이끌었던 장수로 명량해전에서 전사했으며 목이 효시되면서 왜군의 기세가 꺾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완도 명사십리·소세포 지구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개발

郡, 해수욕장·드라마 세트장에 숙박시설·테마파크 조성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소세포 드라마 세트장 지구가 사계절 체류·체류형 휴양 관광지로 본격 개발된다.
완도군은 최근 전남도로부터 관광지 개발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된 명사십리와 소세포 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관광지 조성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대 67만

4천280㎡ 부지에 호텔과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과 자동차 야영장, 스포츠 테마파크, 생태학습장, 연구 연구 시설 등의 휴양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상왕" 장보고의 일대기를 다룬 KBS 기획드라마 '해신' 드라마 세트장인 완도를 대신리 소세포 일대 24만 3천518㎡에는 선박 전시장과 해양 레저시설, 관광숙박시설, 상가 및 운

동요락시설 등이 들어선다.
김중식 완도군수는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소세포 드라마 세트장이 체험, 체류형 사계절 휴양 관광지로 조성되면 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연륙교 개통 이후 연간 120만 명이 찾고 있는 전남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의 하나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장흥 대표식당 2곳 선정 머루랑 다래랑·용소산장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머루랑 다래랑(업주 위성민)과 유치면 신흥리 용소산장(업주 김미애) 2곳이 장흥군이 공모한 '장흥진 장흥 전문음식점'에 선정됐다.
머루랑 다래랑은 표고산적과 생약초 비빔밥이 주메뉴이며 용소산장은 물천어 백반과 정식으로 유명하다.
이들 음식점에는 장흥진 장흥 전문음식점 지정서가 교부되고 업소당 1천5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축구장 시설 점검중 공무원 뇌출혈 숨져

해남군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담당 천강숙(56)씨가 지난 19일 오전 해남군 우슬체육공원내 축구장 용경기장 등의 시설을 점검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21일 낮 12시30분께 숨졌다.
천씨는 다음달 해남에서 열리는 2008년 한국고교축구연맹 상비군 선발 및 해외과견선수 선발전 경기를 유치한 뒤 경기장 시설을 점검하다 변을 당했다.
천씨는 지난 1981년 공직에 몸담은 뒤 줄곧 생활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최근 우슬체육공원 공사를 순조롭게 마치고 전국 규모의 스포츠 경기를 잇따라 유치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가을 들녘 나락 말리기 한창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나락을 가을 햇살에 말리고 있다. 올해는 가을철 잦은 비와 태풍 등으로 벼가 덜 여물고 병충해 발생도 잦아 예년보다 작황이 좋지 않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함평 월야면 내동리 사인정·망배당 복원

현감을 지낸 네 부자의 충효사상을 기리기 위한 사인정과 망배당이 복원됐다.
진주 정씨 대종회는 지난 20일 함평군 월야면 내동리에서 사인정과 망배당 복원, 준공식을 열었다.
고려 공민왕 2년에 태어난 함평공은 평안도 함흥 현령을 지냈으며 세아들들도 각각 고산(전북 완주)과 횡성, 무안 현감을 지냈다.
아들 삼형제는 또 수양대군

현감 지낸 4父子 충효사상 본받아

이 왕위에 오른 뒤에는 망배단을 쌓고 강원도 영월에 있는 단종을 향해 조석으로 절을 올려 군신의 의리를 다했다고 전해진다.
이들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사인정과 망배당을 세웠으나 정유재란때 불에 타 소실됐으며 지난 2004년부터 복원사업이 시작됐다.
진주 정씨 진양군 총장공과 정한기 대종회장은 "600여 년간 잦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사인정과 망배당이 복원돼 여한이 없다"며 "지역내 젊은이들의 충효사상을 기를 수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함평=박정진기자 pyj4079@

신안 압해종교 '낙지기업' 눈길

가격 쌀 때 구입해 1~2개월 키워 팔아 지역 음식점 공급...인터넷·전화판매도

신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연산 낙지를 길러 내다 파는 '학교기업'을 만들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신안 압해종합고등학교는 22일 '섬드리 갯벌낙지 학교기업'을 개업하고 본격적인 영입에 들어갔다.
이 기업은 교직원 26명과 수산과 학생 70명으로 구성됐고 학교장은 사장이 되고 학생이 종업원

이 돼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이 회사는 신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낙지를 모아 학교 양식장에서 1~2개월간 키운 뒤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내다 팔 계획이다.
낙지는 양식이 안돼 일기상태에 따라 채집량이 크게 달라지고 가격 등락폭도 크다는 점을 이용해 가격이 저렴할 때 비축했다가 값

이 높아질 때 판매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섬드리 갯벌낙지 학교기업'은 신안 일대 음식점을 상대로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인터넷이나 전화주문도 받아 낙지를 전국에 판매할 계획이다.
신안군과 전남도 교육청도 사업 전망이 밝다고 보고 올 5월 학교 양식장에 예산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1천500여만 원을 들여 산소 발생기도 설치해 줄 계획이다.
압해종교는 창출되는 수익금은 계속해서 학교기업에 재투자하고 일부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Kwangju Ilbo



분격, 신뢰, 교양이 있는 신문 격동의 현대사를 지켜온 증인

광주일보가 창간한 이래 70여 년간
한국현대사의 증인이 되어 왔습니다.
광주일보가 창간한 이래 70여 년간
한국현대사의 증인이 되어 왔습니다.
광주일보가 창간한 이래 70여 년간
한국현대사의 증인이 되어 왔습니다.
광주일보가 창간한 이래 70여 년간
한국현대사의 증인이 되어 왔습니다.

광주일보 창간 70주년 기념 특별호
1937년 10월 23일 창간
1997년 10월 23일 창간 60주년 기념 특별호